

엔터테이너

Entertainment

씨야·다비치 함께 디지털 싱글 발표

3인조 여성그룹 씨야와 여성 듀오 다비치가 함께 디지털 싱글 '여성시대/영원한 사랑'을 29일 발표한다. '여성시대/영원한 사랑'은 같은 곡을 두 개의 다른 가사로 부른 두 가지 버전의 싱글이다. 최근 씨야에서 탈퇴한 남규리의 공백은 엔넷미디어에서 3년간 준비해온 5인조 여성그룹 티아라(T-ara)의 멤버 지연이 메웠다. 해화여고 1학년인 지연은 지난해 스마트 모델 선발대회 대상을 받아 사이니와 함께 모델로 활동했으며, 티아라의 멤버인 동시에 씨야의 새 멤버로도 활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자명고'서 물오른 연기 김성령

때론 표독스럽게... 때론 어질게

사극의 여왕

KBS 2TV '대왕세종'에서 태종의 후궁 효빈 김씨, MBC '돌아온 일지매'에서 일지매의 양모 단이 역을 연기했던 김성령이 이번에는 낙랑국을 배경으로 물오른 사극 연기를 펼치고 있다. SBS 월화드라마 '자명고'(극본 정성희, 연출 이명우)에서 낙랑의 왕 리(홍요섭)의 첫째 부인이자 자명(정려원)의 생모인 모하소로 분한 그는 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어미의 눈물겨운 모성애와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그리고 있다. "연이은 사극 출연에 사극 배우로 이미지가 굳어 질까 불안하기도 했다"는 그는 "모하소 캐릭터에 끌려 출연을 결심했다"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계속 사극만 하다 보니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사극은 뛸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는데 장르를 떠나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어. 굉장히 착한 여인이고 마지막에 감동이 있거든요."

모하소는 낙랑국을 멸망시킬 운명을 타고났다는 음모로 갓 태어난 딸 자명을 죽여야 할 처지가 되지만 차마 손을 끊지 못하고 강에 흘려보낸다. "대본을 받고 촬영까지 한 달 이상 남아있었는데 야기를 배개로 놀려 죽이는 장면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오랜만의 휴식기였는데 부담이 돼서 쉴 수가 없었죠."

공교롭게도 촬영 첫날 이 장면을 연기해야 했던 김성령은 실제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새운 촬영 끝에 병원 신세를 지야 했다.

"너무 울고 소리를 질러서 급성후두염에 걸리고 온몸에 물집이 났죠.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처지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끔찍했어요. 촬영 후에 다시 영상을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김성령은 2007년 개봉된 사극 영화 '궁녀'에도 출연했으며 거슬러 올라가면 드라마 '조광조'와 '왕과 비' 등의 사극에도 출연했다. 지금은 때로는 표독스

러운 왕비로, 때로는 어진 어머니로 변신하며 사극을 누비고 있지만 미스코리아 출신인 그가 처음부터 사극에 잘 어울리는 배우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도시적인 이미지였던 제가 과연 사극에 맞을지 우려가 컸는데 점점 사극에 잘 어울린다는 반응을 얻게 됐어요. 저도 이제 익숙해져서 사극이 편하고 제 외모가 사극에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 그는 "사극을 그만 하라는 조언도 듣는데 사극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계속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청자가 너무 지겹다고 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정해 놓고 가지는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1988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김성령은 1991년 영화 '누가 옳은 발톱을 보았는가'로 연기자에 데뷔했으나 어느덧 연기 데뷔 20년을 바라보는 중년 배우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연기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요. 큰 욕심 없이 지금 하는 일에 뛰치지 않고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게 목표예요. 미스코리아의 후광으로 연기를 시작했지만 미스코리아 타이틀은 없어진 지 오래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 자신의 노력에 달렸죠." /연합뉴스



'내조의 여왕' 온달수역 오지호

"로맨틱 코미디 저장되고 싶다"

MBC TV 월화극 '내조의 여왕'이 승승장구다. 상승세의 중심에는 감칠맛 나는 코믹 연기를 펼치는 김남주가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김남주의 남편으로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엘리트 온달수 역을 연기하는 오지호(33)도 드라마의 재미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오지호는 "남녀 시청층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드라마"라며 "내 주변 남자들은 극 중 직장 생활 장면이 무척 재미있다고 평가한다"고 드라마의 인기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드라마에서 그는 서울대 의대 출신의 수재이지만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나온다. 눈치 없이 어리바리한 바람에 아내 천지애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나간다.

"일과 관련된 면을 빼고 생활할 만큼 고려하면 온달수는 지금까지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 중 저와 가장 닮았어요. 실제로 저는 극 중 온달수처럼 한 번 보면 잘 안 잊어버리니까. 한 번 간 길도 잘대로 안 잊어버리지요. 어렸을 때 양상을 배워서 기억력이 좋은가봐요."

온달수는 극 중에서 한준혁(최철호)과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한다. 한준혁은 온달수의 직장 상사이자 천지애를 사랑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오지호는 최근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는 장면을 놓고 최철호와 은근한 신경전을 펼친 에피소드를 전했다.

"사우나 촬영신이 예정됐는데 철호 형이 촬영 한 시간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했지요. 촬영 시간을 알려준 후 나중에 현장으로 가보니 철호 형이 혼자서 두 시간 가량 운동을 하고 있었습디다. '나는 촬영하느라 오히려 살이 빠졌는데 형은 너무만 것 아니냐'고 제가 항의하기도 했지요."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드라마에서 코믹한 연기를 주로 선보였다. '신입사원', '환상의 커플', '실금과파' 등에서 재미있는 연기로 사랑받았다.

"망가지며 웃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믹한 연기를 한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차승원 선배 같은 연기를 하고 싶어요. '로맨틱 코미디라면 오지호'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습니다. 일단 로맨틱 코미디의 거장 이 되고 난 후 내면을 채워 보여주세요." /연합뉴스

·0621351-8240 ·010-7203-1100
공, 경매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행숙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안구	월계동	월단순경 79	8천	5천8백
		월단순부 112	1억3천	9천1백
		월단순호 112	1억1천	7천7백
		월단순중 95	9천8백	6천9백
		월단순중 112	9천2백	6천4백
		월단순중 106	1억1천	7천7백
		월단순중 191	4억2천	3억2천2백
		월단순중 102	9천5백	6천8백
		월단순중 85	7천5백	4천9백
		월단순중 72	1천	3천5백
서구	월계동	월단순경 146	1억3천	9천1백
		월단순경 116	9천5백	6천8백
		월단순경 91	4억	7천
		월단순경 88	1억1천	2억9천
		월단순경 103	9천	6천3백
		월단순경 112	1억3천	9천4백
		월단순경 79	8천2백	6천5백
		월단순경 122	1억2천	8천4백
		월단순경 125	1억9천	1억3천3백
		월단순경 103	1억9천	1억1천2백
북구	월계동	월단순경 79	7천5백	5천2백
		월단순경 102	1억1천	6천
		월단순경 79	7천5백	5천2백
		월단순경 194	1억1천	3천5백
		월단순경 201	1억6천5백	4천7백
		월단순경 79	6천8백	4천2백
		월단순경 102	1억1천	1억5백
		월단순경 75	6천8백	4천4백
		월단순경 165	1억9천5백	6천8백
		월단순경 112	9천5백	6천8백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남구	주월동	114/140	8천9백	4천5백	
	백운동	141/77	1억1천	4천5백	
	서구	사정동	245/78	4천	2천8백
		농성동	707/85	2억2천9백	1억2천9백
	동구	소태동	940/15	1억1천9백	8천3백
		신기동	810/289	1억	5천5백
	북구	신기동	136/181	1억1천4백	7천9백
		신기동	413/182	1억6천5백	1억1천
		기화동	1121/722	1억6천3백	9천1백
		무인동	514/334	3억4천5백	1억9천3백
물향동		118/91	6천5백	3천5백	
지이동		337/179	1억1천1백	7천1백	
남양동		289/79	9천5백	2천5백	
신기동		489/150	6천5백	4천5백	
월이동		1392/318	1억4천8백	6천5백	
월이동		880/183	5천1백	1천3백	
북구	동북동	828/96	4천1백	1천4백	
	이암동	903/111	1천9백	7천1백	
	농주동	430/112	3천5백	2천4백	
	월이동	414/135	5천2백	3천5백	
	월이동	1121/722	5천8백	3천5백	
	월이동	1153/133	6천8백	3천5백	
	월이동	584/125	6천8백	3천5백	
	월이동	426/135	7천3백	4천1백	
	월이동	780/73	3천2백	2천5백	
	월이동	352/134	5천1백	3천5백	

구	소재지	면적(㎡)	지목	감정가	최저가	
남구	백운동	252	전대	7억4천1백	3억3천2백	
	송정동	133	대	3억5백	2천5백	
	무정동	191	전	1천1백	5백	
	요기동	410	대	2천6백	1천1백	
		509	대	1천		
		406	대	4억4천7백	2억2천	
		423	전	8천4백	5천9백	
		2844	대	8천5백		
		2396	대	4천5백		
		108	대	1천5백	5백	
북구	월이동	878	전	1억7백		
	용주동	833	전	2억2천4백		
		1896	전	4억5천7백		
		1352	전	3억6천5백		
	서구	마북동	2354	대	11억2천	
		월이동	4851	대	2억8백	1천1백
		송남동	1816	전	1천1백	3백
		월이동	15317	전	1억9백	7천1백
			3728	전	2천4백	
			10446	대	6천7백	
		8890	대	8천4백		
		2460	대	4천4백	1천5백	
		21531	전	2억5천4백	2억5천5백	
		3064	전	7천5백	7천5백	
북구	조성동	6195	대	3천3백	2천5백	
	월이동	392	전	9백	8백	
	월이동	5955	전	2천1백	1천5백	
	도림동	2155	대	2천5백	2천4백	
		2713	대	3천5백	2천4백	
		1031	대	9백	5백	
		1349	대	1천2백	5백	
		2172	대	5천9백		
		1924	대	1천3백		
		824	대	7백		
북구	월이동	1280	대	1천4백		
		2740	대	3천1백		
		682	전	1천4백		
		2251	전	1억1천4백		
		3474	전	1억5천9백	1억1천1백	
		1200	대	1천2백	8백	

구	소재지	면적(㎡)	지목	감정가	최저가
광안구	월이동	2616	대	1억8천3백	6천5백
	북양동	937	대	1천3백	
	서양동	1234	대	1천3백	
	삼서동	2918	대	9천9백	6천9백
		2517	대	2천5백	1천7백
		4161	대	4천5백	
		6817	대	7천8백	
		2026	대	2천	
		3729	전	5천9백	3천5백
		2783	대	5천5백	3천8백
남구	고서동	1904	대	3천3백	
	봉산동	1699	대	2천5백	1천7백
		1362	전	3억6천5백	
		2354	대	7백	4백
		49325	임야	1억9백	6천

구	소재지	면적(㎡)	지목	감정가	최저가
서구	월이동	14758/1550	7억9천	4억9천2백	
	월이동	348/880	4억6천5백	1억3천2백	
	유동	158/488	391천1백	194천2백	
	신안동	281/877	8억6천5백	3억5천5백	
	봉산동	580/204	3억5천5백	2억5천	
	화정동	784/1035	10억9천5백	7억6천6백	
	월이동	29	1억2천		
	월이동	248/614	5억4천5백	3억8천1백	
	월이동	480/1036	9억1천5백	6억4천	
	월이동	43	1억5천	8천4백	
북구	유안동	165/218	1억9천5백	10억9천4백	
	금남동	455/1657	19억5천	9억4천	
	월이동	284/293	10억9천1백	7억5천7백	
	월이동	142/140	1억9천1백	1억3천4백	
	월이동	583/254	2억	1억4천	

• 상기물건 외 다수 확보! 물건 모두 친절하게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